

페미니즘, 기회를 넘는다



2018년 3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토크콘서트 '교회 언니들의 불금파티 - 금지된 것은 없다. Nixing'. 교회의 성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성차별의 경험을 '교회 언니들(여성신학자)'에게 털어놓는 안전한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무려 80여명의 청년들이 서울YWCA 강당을 가득 매웠습니다. 그 중에는 남성도 더러 있었죠. 청년들은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했던 교회에서의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경험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가고픈 마음을 신앙으로 겨우 붙들고 있으나, 매순간 교회에서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혼드는 성차별로 눌러있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성차별적 언어폭력으로 상처받아 교회를 뛰쳐나왔다는 한 참가자는 이미 10년도 더 된 경험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청년들은 쉽게 아물지 않는 신앙공동체에서의 상처에 대해 아직 채 식지 않은 분노를 삼키며 말하기를 이어갔고, 용기를 담아 전하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은 박수와 눈물로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에 침묵하며 건디는 것도, 홀로 대항하는 것도 너무 힘겨운 여성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12:15)

곧 100살이 되는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인 서울YWCA는 든든한 '교회언니'로 상처받은 기독교성청년들과 함께 아파하고, 이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겠다는 소명을 품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때가 많지만 작은 부분부터 바뀌나갈 용기가 생겼다'는 한 청년의 고백이 서울Y가 이런 소명을 잃지 않게 할 용기가 되리라 믿으며.

성평등한 교회를 위해 크고 작은 일을 시도해오던 2020년, 서울YWCA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으로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성주의 연구커뮤니티 운영, 교회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는 평등한지 질문하고 성찰하였습니다. 이 책에 그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페미니즘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차별없는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회복하기 노력해온 그간의 걸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살림의 공동체를 꿈꾸어 갈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 2020년 10월의 어느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	6
서울YWCA 기독교여성주의 운동	22
활동가들의 이야기	50

F E M I N I S M

•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

M



기독교여성주의 연구커뮤니티

기독교여성주의 연구커뮤니티는 2020년 사업에서 가장 주축이 된 모임이었습니다. 여성신학자와 교수, 목회자, 기독교 단체활동가, 서울Y 자원활동가와 실무자까지 무려 17명이 함께한 대집단으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이 모이는 집단지성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죠. 성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한 고민을 나누며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자문을 비롯해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힘을 모았습니다. 연구커뮤니티에서 교회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의 커리큘럼 구성을 비롯하여, 바쁜 학기중에 강의까지 진행해주셨습니다.

강호숙 박사 기독교문화연구원 / 김혜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 김희선 교수 명지대학교 상담복지학과 / 나연수 목사 서울은원교회(예정합동)
백소영 교수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 송진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 오수경 대표 청아람 ARMC / 이은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이주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 장근지연구원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민논페이 / 채송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통합
황성연 위원장 서울YWCA 이사-여성참여위원회 / 정선덕 부위원장 서울YWCA 이사-여성참여위원회 / 김재신 이사 서울YWCA 이사-여성참여위원회
최봄 국장 서울YWCA 여성참여팀 / 김예리 부장 서울YWCA 여성참여팀 / 이기쁨 활동가 서울YWCA 여성참여팀



2020년 가을, 성평등교육이 교회를 찾았습시다. 교회가 공동체 안의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받는 자들을 파격적으로 껴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살림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교육이었죠. 코로나19로 교회의 예배와 소모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교육은 모두 비대면의 온라인 방식으로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10개의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참여했습니다. 서울Y 기독교여성주의 연구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11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이 교육은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5개의 주제를 담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은 각 교회에 '우리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인가?'라는 질문과 성찰의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교회의 평등 리더십'에서는 교회의 법과 제도를 젠더관점에서 들여다보며 남성중심의 교회 직분구조가 과연 성경적인지, 설교와 의사결정구조, 사역현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위계에 대해 성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성과 영성'에서는 살리고 살피는 실천적 영성으로서의 성을 고민하려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신청한 공동체가 없었어요ㅠ). 세 번째 주제인 '사랑과 폭력, 그리고 용서'에서는 성경

속 성폭력 사건과 교회에서 발행하는 성폭력, 그리고 용서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지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성경 속 남성과 여성'에서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성경 속 여성인물을 재조명하였고, 다섯 번째 주제인 '가족, 가장 작은 교회'에서는 '정상가족'의 가치관에 익숙한 교회공동체에서 비혼, 이혼, 재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변화해야 할 교회의 인식을 다루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성차별의 근거로 활용되는 성경구절에 대한 의문, 교회 내 성폭력문제, 성별화 된 사역 등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과 문제의식에 대해 질문하고 뜨겁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교회 안의 차별을 충격적으로 인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차별이라 느껴지는 상황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속으로만 끄끙 앓던 한 자매는 교육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한 교회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교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려는 교회공동체들의 열망을 확인하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차별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것은 불편한 감정을 수반하는 일이라 참여자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고 온라인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변화는 필요하고, 차별로 인해 불편한 누군가를 놓아주기 위해 짐을 나눠지는 것 역시 공동체의 몫이니까요. 아마 교육 이후 바라보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않을것입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을 떤 교회공동체들이 앞으로도 성경 안에서 살림의 공동체 회복의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9/20(일) 오후2:00-4:00
송진순 교수
성경 속 남성과 여성
- 목격자로 살라

9/20(일) 오후4:00-6:00
나연수 목사 / 채송희 목사
교회의 평등 리더십
- 누가 말하고 결정하는가 /OO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자들?

9/22(화) 오후7:30-9:30
이주아 교수
사랑과 폭력, 그리고 용서
-성경 속 성폭력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누가 용서할 것인가

9/27(일) 오후4:00-6:00
이주아 교수
사랑과 폭력, 그리고 용서
-그 사랑은 폭력이다 /누가 용서할 것인가

9/27(일) 오후7:00-9:00
김희선 교수
사랑과 폭력, 그리고 용서
-교회 안 성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2

10/10(토) 오전11:00-13:00
강호숙 박사
교회의 평등 리더십
-교회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평등을 말하는가

10/11(일) 오후1:00-3:00
오수경 대표
가족, 가장 작은 교회

10/17(토) 오후1:00-3:00
장근지 연구원
사랑과 폭력, 그리고 용서
-성경 속 성폭력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0/20(화) 오후2:00-4:00
김혜령 교수
사랑과 폭력, 그리고 용서
-누가 용서할 것인가



교회의 '평등' 리더십

사전질문/ 모태신앙으로 교회 내 고착된 문화에 익숙해져서 문제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남녀역할의 차이, 청년과 장년층의 소통부재...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교회 어른들의 생각이 답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추구해 나가며 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 | | |
|---|---------------------------------------------------------|
| 1 | 교회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평등'을 말하는가 |
| 2 | '누가' 말하고 결정하는가 : 교회 내 직분에 따른 힘의 크기, 의사결정구조 |
| 3 | '무엇을' 선포하고 가르치는가 : 설교와 교육 |
| 4 | OO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 성별, 나이, 직분 등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는 사역 현장 |
| 5 | 평등한 교회 리더십을 꿈꾸며 : 모두에게 안전하고 은혜로운 교회 만들기 |

강의주요내용

"교회 평등리더십을 위한 교회법과 제도에서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직분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의 장점과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고,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 오늘날의 세대의 흐름과 맞춰서 교회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복음적 자존감을 세워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여성을 자유롭게 하셨고, 당당한 하나님의 딸로서 세워주셨는데 왜 교회가 남성에 종속되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자존감이 매우 낮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려면 남녀 간의 정의, 젠더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랑, 평화, 인격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등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성과 권력', '성과 언어'의 문제입니다. 첫째, 권력의 문제에서는 직분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헌법 안에 있는 직분제도에서 선거제도, 교회정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성에게도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언어와 성의 관계는 중요한데 2000년사에 모든 성경해석과 신학담론은 남성이 주체가 되어 해왔습니다. 교회 헌법도 남성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성이 해석해야 합니다.(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서, 여성의 신학담론 등) 교회 헌법도 여성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여성안수와 여성리더십을 통해서 여성의 주체성, 대표성을 인정하고, 성평등한 직분구조를 구축해서 여성도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여성 설교자, 여성 윤리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차별이 생각보다 곳곳에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에 여성이 비율이 낮거나 전혀 없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었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바울의 성차별적 본문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2

성(性)과 영성 sexuality and spirituality

- 1 태초에 '몸'이 있었다: 아담의 몸 vs 하와의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
- 2 이는 내 뼈 중의 살이요, 살 중의 뼈로다
: 하나님의 형상들 간의 성과 영성생활
- 3 성과 자기돌봄의 영성: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맺기
- 4 친밀함의 관계적 영성: '나'와 '너' 사이 관계맺기
- 5 살리고 살피는 실천적 영성: 사람 너머의 '삶'으로, 생존 너머의 '공존'으로

03

사랑과 폭력, 그리고 용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로 가장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두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 1 성경 속 성폭력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2 그 사랑은 폭력이다: 폭력의 다양한 사례
- 3 교회 안 성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1): 교회 안 성폭력 사례
- 4 교회 안 성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2): 교회 안 성폭력 대처
- 5 누가 용서할 것인가: 용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강의주요내용

"용서는 언제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불가능성의 인정에서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진정으로 용서를 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가해자의 잘못들) 진정 우리가 용서를 말해야 하는 죄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회와 제3자들이 동시에 인정을 할 수 있을 때 용서를 논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와 가해자가 어떤 개념을 받아서 스스로 인정해야 하느냐,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넌센스이고,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만해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용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영어로 보면 'forgiv, pardon'이라는 단어들인 '주다,' '선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진정으로 용서를 논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용서의 첫 발자국입니다."

교회 안에서 폭력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행해지고 있고, 그것은 신도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히 듣고 배우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가 성평등해져야, 교회가 진정한 이웃과 공동체가 되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사례들과 이론들을 통해 감수성을 넓힐 수 있었고,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어떤 생각들을 조심해야하고, 또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하고, 피해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4

성경 속 남성과 여성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다고 하는가?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일까? 그 차이가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 차별을 할만큼 중요한 것인가?

- | | |
|---|-----------------------------------|
| 1 | '모든 산 자의 어머니' 하와 |
| 2 | 여성 리더십 : 예언자, 사사, 지혜자 |
| 3 | 구약의 여성 : 슬로브트 딸들의 질문 |
| 4 | 신약의 여성 : 마리아와 마리아들 |
| 5 | 목격자로 살라 : 부활의 첫 증인과 교회의 초석이 된 여성들 |

강의주요내용

"모든 사람들이 나도 같이 연루될까봐 십자가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의 엄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되게 많은 마리아들이 쪽 있었습니디. 이런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그 시체를 받으면서 인계했었던 역할을 하였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무덤가에 서서 직진후원자가 되었던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일반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처음 시작과 부활의 마지막에 누가 있었나. 여성들이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제자직이라는 말이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여제자라는 말이 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성을 제자라고 아예 안 부른 것은 아닙니다.(여제자 다비다 (도르가) 등) 제자라는 말은 사실은 정통성을 위해서 예수를 봤었던 그를 따랐었던 남성 제자들만 픽스를 해놨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여성들의 예수의 추종자들, 활동가들, 증언자들, 증인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역에 성별의 제한은 없다')는 강의를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차별적 문제들 앞에서 지칠 때가 많았는데 같은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05

가족, 가장 작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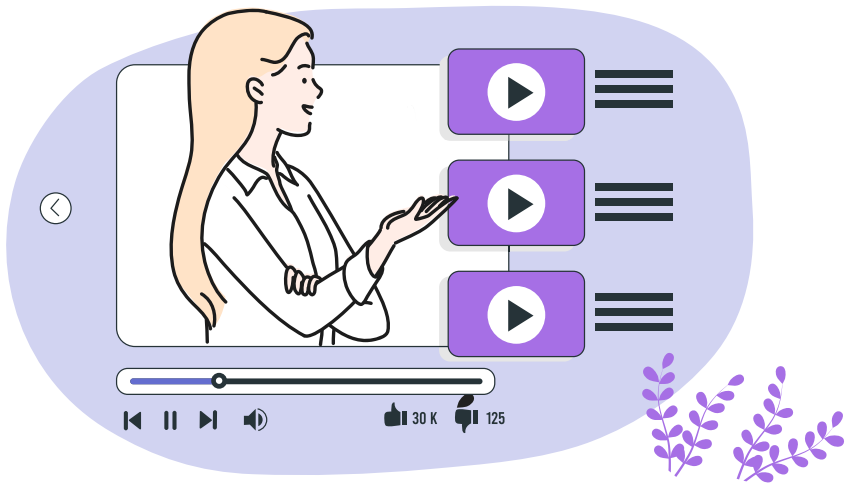
성경에서 얘기하는 규범적인 정상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이 범주를 벗어난 것은 비정상적이고, 부족한 가정이라는 인식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가능한 성경적 정상가족 규범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글가족,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나 태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
|---|------------------------------------------------|
| 1 | 안녕하세요? 가족입니다
: 근현대 사회의 가족은 어떻게 탄생했고 형성되었나 |
| 2 |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기독교는 '가족제도'를 어떻게 견인하고 신성화했나 |
| 3 | 이상한 '정상' 가족 : 근현대 가족제도는 어떻게 변화/불화하고 있나 |
| 4 | 우리도 가족입니다 : 혈연과 모성을 넘어서 가족의 변화 |
| 5 | 가족, 가장 작은 교회 : 가족을 재구성하는 기독교적 상상력 |

강의주요내용

"오늘날 가족이 해체 되고 있다고 우려할 수 있지만 이런 흐름을 해체라고 보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모든 성별에게 정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인류역사상 기독교 신앙보다 가장 오래된 체계가 가부장체계였고, 가부장체계에서 여성들이 억압을 당했고,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형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정해체 현상은 개인의 이기심이나, 사회가 약해졌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동안 사회가 고수한 부정의 한 가부장체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거의 초과상태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재구성되고 있다고 인식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체를 하지 않으면 재구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체와 재구성 사이의 이행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2020년이라는 사회가 많은 것들이 재구성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가족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을 잘못하면 퇴행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이행과 퇴행 사이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행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더 다양한 가족관계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성이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남성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는 것으로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여성들을 위한 해결책들을 교회론과 신앙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잘 참고해서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한 가정과 교회,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남성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며 행동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한 교회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교회공동체를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리더십, 교회안의 젠더권력과 여성혐오, 환대와 포용의 기독교 공동체, 권력형 성폭력,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쟁점까지 꼭 한 번씩 고민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은 서울YWCA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호숙 박사
기독교인문학연구원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

"성경적 페미니즘을 외치는 이유는, 특별히 보수 쪽 기독교 여성들이 신앙관이 가장적입니다.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괜히 까닭 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정당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셨는데 주눅 들어 사는 여성의 삶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수교단에 있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성 편이다!' 당당하게 힘을 주고 싶었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딸로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인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페미니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대다수의 남성 신학자라든지, 교부들이라든지, 목회자들에 의해서 해석되면서 남성을 위한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수많은 설교와 강해와 교육을 들어도 내가 여성으로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도전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통해서 내가 여성 됨, 그리고 그 여성 됨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는, 자기의 삶에서 느끼는 많은 삶의 불편한 차별들과 모든 것들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여성 됨을 자각하면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성경적 페미니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02



다말과 권력형 성폭력

이은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구약성서의 성폭력 사건은 부권이나 왕권이라는 권력과의 관계 아래서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읽고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각종 성범죄 사건들 중 특히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성서의 교훈과 메시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다말 또한 왕의 딸이었지만 왕궁 안에서 자신의 오빠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아버지와 친오빠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그의 "쓸쓸한 삶"에는 위로와 치료와 연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말 자신이 되어, 그의 부모와 가족이 되어, 그의 친구가 되어 그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의 신명기 역사가는 왕정의 어두운 면, 왕궁 속에서 일어난 성적 범죄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정의 한계를, 왕권의 폭력성을, 인간의 악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증언은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하게 합니다. ...모든 종류의 권위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아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삼하 11:27)이고, 그 결과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03



차별과 혐오가 없는 환대와 포용의 기독교 공동체

장승익 목사
예수마을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저자 혹은 작가의 의도와 철학, 작가의 성품과 삶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인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혐오, 배제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삶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의 삶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는 당시 공회원이자 바리새파 사람인 니고데모를 내치지 않고 그를 환대하고 기꺼이 대화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도 직접 찾아가 그 집에 머물면서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예수께 나아오는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소외 받고 사는 세리, 죄인, 어린이와 여인들을 포용하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경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환담하셨고 그 여인 안에 있는 내적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소외받으며 사는 주변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주셨고 온전히 환대하셨습니다. 친절과 배려를 동반한 진정한 환대와 포용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04



채송희 목사
예장통합

교회와 젠더권력

"우리가 교회와 젠더 권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정신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를 이미 떠난, 그리고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다시 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 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교회에서 더 많이 자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젠더 감수성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배울 기회가 필요합니다. 셋째, 젠더 분석을 통해 교회의 법, 제도 구조, 직분,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지침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기반한 평가는 교회의 형편에 맞게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서 있는 구체적인 자리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함께 합시다."



05



이민지 작가
언니네 교회도 그래요

언니네 교회도 그래요?

"교회 내 여성혐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성을, 남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부차적인 하위주체로 설정해놓습니다. 여성 존재 자체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본인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여성들을 남성을 유혹하는 성적 대상으로 여깁니다. 외모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원인 제공자쯤으로 여깁니다. 즉 여성의 존재 자체를 아주 부차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남성을 위한 도구와 대상으로 못 봐야 놓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구절들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여성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여성성 배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머물러야 하는 세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이 열망해야 하는 역할과 열망하지 않아야 하는 역할, 즉 프레임만 만들고 곧 여성성의 정체성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이자 혐오입니다."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성들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당대의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창조의 본래 의도대로 여성들을 인격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정서가 예수님의 행보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화된 눈과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성들의 서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반쪽자리 시각으로 해석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 평등과 해방을 지향하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FEMINISMS

· 서울YWCA
기독교여성주의
운동

M



'Nixing'은 여성신학자 메리달리(Mary Daly, 1928~2010)가 사용한 용어로, 가부장제 안에서 제한된 여성의 역할과 여성성을 규정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거절을 뜻함

“목사님이 창세기를 설교하던 중 하와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강단에서 내려와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나 이 지긋한 여성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가리키며 ‘바로 이 여자들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성도들은 수치스러운 듯 고개를 꼭 숙인 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차별적 설교에 반박하고 싶어도 목회자에 비해 성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평신도들은 성경의 권위에 눌려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201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토크콘서트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금지된 것은 없다’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백소영 교수(강남대 기독교학과)가 진행을 맡았고, 여성신학자인 김희선-이은애-이주아 교수가 ‘교회언니’로서 8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80여명의 청년들은 교회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의 경험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회 성차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성차별적 설교(남성중심적 성서해석)’, ‘여성혐오적 교회 문화(언어, 행동)’, ‘목회자/교회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을 꼽았습니다. 이 세가지 주제에 대해 교회언니들이 사례와 해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약성서학자인 이은애 교수는 성차별적 성서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성서해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주로 남성에게 의해 쓰이고 해석되어 온 성서는 가부장적 해석과 결합하여 일부 강단에서 성차별적 설교로 선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기존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의 시각에서 옳은 해석을 고민하는 성서읽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성차별 TOP 3

- 1위 성차별적 설교 (남성중심적 성서해석)
- 2위 여성혐오적 교회문화 (언어, 행동)
- 3위 목회자/교회지도자의 성폭력

“식사준비를 전담하는 것을 비롯해
온갖 잡일은 여성들이 하지만
교회건축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드러나는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사역에 비해 여성사역은 골방에서
중보기도하거나 돕는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여자들이 입이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교육학자 이주아 교수는 성서에서 많은 여성인물들의 존재와 사역이 축소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략되어왔음을 ‘영(0)의 교육 과정’의 개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성 지도자나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영역에 위치시키려는 교회의 관성적인 문화를 꼬집으며, 문제의식을 느낀 여성들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변화의 첫걸음을 강조했습니다.

한 남성 참가자는 전도사 시절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남성 목회자들과 전도사들 간 성적인 농담이 많이 오갔는데, 심지어 한 성도의 외모를 거론하며 ‘따먹고 싶다’는 성범죄에 준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 시키는 분위기라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목회상담가인 김희선 교수는 목회자라는 권위에 남성의 위계가 더해져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중에서도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가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내 목회에 정말 도움이 된다’, ‘네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목회자의 말에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여성신도들은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에도 죄책감과 자기혐오에 시달리게 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교회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잘못된 조언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더불어 당사자들이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의 바른 대처법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보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눈물로 쏟아내는 이야기들에 교회언니들은 어떤 판단이나 선부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듣고 공감해주었습니다. 그저 말하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백소영 교수는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자신을 살리고 살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서로 지지받고 연대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정의를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변화의 출발이며 오늘의 자리가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YWCA 유튜브를 통해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리즈 I.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 요약 영상

- 1. 성차별적 설교
- 2. 여성혐오적 교회 문화
- 3. 교회 내 여성차별적 교육의 문제점
- 4.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 5. 교회언니는 _____이다.

영상 시리즈 II. After 불금토크_언니들의 뒷이야기

- 1. 첫 번째_불금파티를 마치고
- 2. 두 번째_은애언니의 여성주의적 창세기 더 듣기
- 3. 세 번째_주아언니의 기독교 교육학적 이야기
- 4. 네 번째_희선언니의 교회 내 성폭력 대응방법
- 5. 다섯 번째_소영언니의 현대사회의 성과 사랑

여성혐오
없는
공동체를
위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그 후 4년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사건 이후, 여성혐오를 멈추라며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의 여성혐오범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여성혐오의 실상을 마주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여성혐오 없는 공동체를 위한 예배를 꿈꾸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여성혐오가 폭력의 형태로 또다시 드러납니다. 서울Y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성단체들과 연대하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가운데, 기독교여성단체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처럼, 여성혐오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땅의 여성들과 함께 우는 예배, 또 여성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순결이 강조되던 시대, 성령잉태 소식을 듣고 당황하며 불안에 빠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나누는 믿음직한 선배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여성혐오 없는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구하는 예배. 예배드리는 곳이 곧 운동의 현장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이 예배가 ‘안전한 예배’로 드러지길 바랐습니다. 몇 해간 기독교성주의 운동을 펼치며, 가부장제와 유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예배로 시험에 빠진 여성청년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 이들에게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여성차별의 문제를 기억하는 예배,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예배, 성차별적 요소가 제거된 여성목회자의 설교가 선포되는 예배,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평적인 예배 등 여성주의적 관점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서울YWCA 여성참여위원회의 주관으로 드러진 이 예배는 황성연위원장과 이기쁨 활동가가 공동으로 인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행18:9)’는 성경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예배로 초대했습니다. 이민서 회장(대학·청년YWCA)이 시대의 아픔을 아뢰는 기도를, 김수련 위원이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채송희 목사가 ‘마리아 찬가(Magnificat)’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며, 아직 마리아찬가를 부를 수 없는 여성혐오 가득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마리아의 아픔과 두려움을 알아봐주고, 젊은 세대를 윤리와 종교적 관습의 잣대로 선불리 재단하기보다 함께 손을 잡고 정의의 하나님나라를 함께 꿈꾸 엘리사벳이 되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김유진 회원(대학·청년YWCA)과 김순임 위원, 이유림 회장이 여성혐오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고했고, 모든 참여자들이 혐오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여성혐오 없는 사회/교회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예배공동체를 소망하며

두 해 전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서울Y에 여성청년을 위한 든든한 교회언니,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고통받는 마리아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힘을 주는 엘리사벳이 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관성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서울Y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서울Y는 기도의 자리가 최전방이라는 믿음으로 엘리사벳 기도운동을 조심스레 꿈꾸어봅니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었다”

예배 후 한 참여자의 소회를 들으며, 2016년 5월 17일 그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은 그 안타까운 죽음이 드러낸 여성혐오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방식으로 여성혐오와 싸울 것입니다. 예배가 드러지는 곳이 운동의 현장이고, 함께 했던 예배자들이 모두 활동가입니다.

※당일 예배실황은 서울Y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혐오 없는 공동체를 위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리는 소리

이유림

서울YWCA 회장

3. 여성의 연대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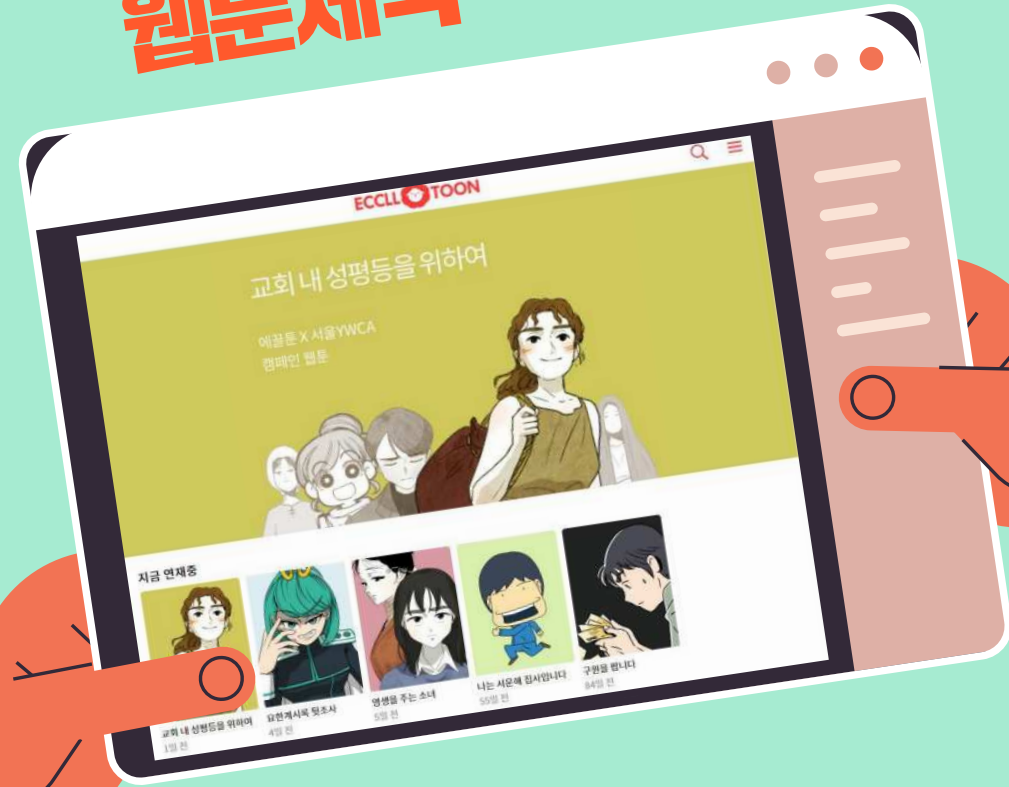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리란 소식에 놀라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였지만, 혼인 전 임신한 여성을 돌로 치는 사회에서 죽을지도 모를 두려움을 안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태의 아이를 축복하며 용기를 주었고, 마리아는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가부장적 가치관과 정상 이데올로기로 가득한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당하고, 불합리함을 감내할 것을 강요받으면서도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들이 지금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마리아들이 엘리사벳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며 두려움 속에서 손을 잡아주고 기운을 북돋워주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누가복음 1:41-42)

성서 속 여성인물의 사역을 재조명하고,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를 성찰하기 위한 웹툰을 제작하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웹툰 채널 '에끌툰'과의 협업과 '비혼주의자 마리아'의 린든작가, '예수는 열두살'의 초작가, '의인을 찾아서'의 마빈 작가의 참여로 완성된 5편의 웹툰 에끌툰과 서울YW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한 교회를 위한 웹툰제작



01

저는 목사입니다(by 린든)



02

그럴 분이 아니야(by 린든)



03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by 린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세기 로마 제국을 살아갔던 한 명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12살 밖에 안 되었을 때, 훨씬 연상인 남성과 결혼하길 강요 당합니다.

남편이 죽어도 2년 안에 재혼하라고 로마법이 강제하고 있으며

재혼 안하면 처벌.

재혼과 동시에 전 재산은 다시 재혼한 남편에게 귀속됩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재산도 갖지 못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삶을 평생 살아야 하는 게 로마 제국의 가난한 보통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속한 이후 부터는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조혼을 강요 받지 않았고, 선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딸아, 니 남편될 사람이다.

싫어요!

재혼은 오히려 만류하는 분위기였고, 과부에게 생계지원도 해 줘서, 그리스도인 여성은 자기 재산을 갖고 살 수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여성은 결혼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 도래하는 일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차별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 속에서 살아갈 그 나라를 꿈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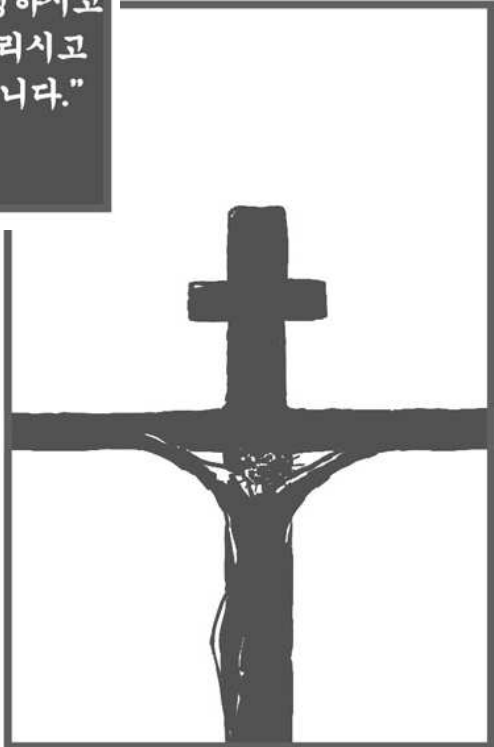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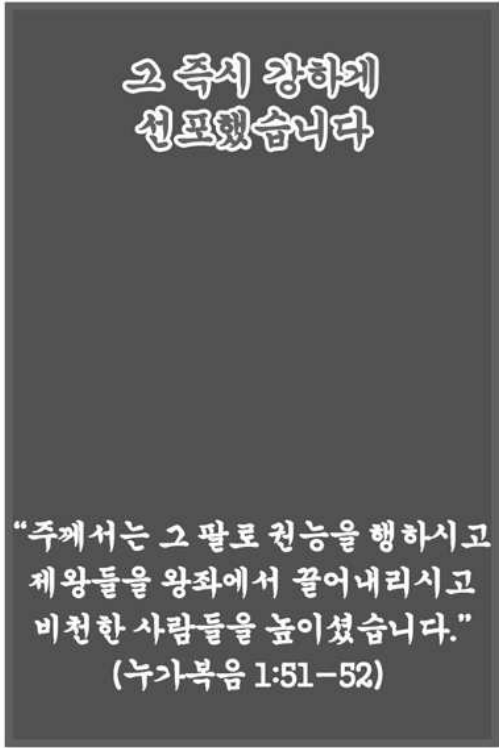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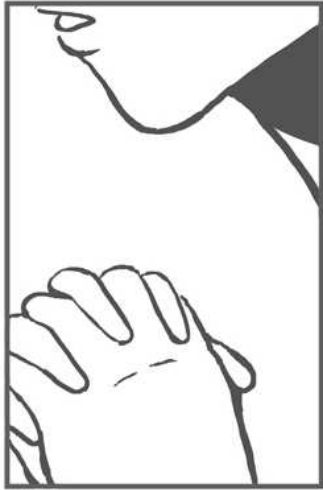
두 제자

MARVIN



(*교황청은 1969년 이 실수를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모든 죄와 억압과 불평들을
 끝낼 하나님의 구원을요

“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3)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교회에서 저는
 ‘순결을 지켜 구원 역사에 순종한 성녀’
 로만 인식되더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별에 따라 그 무게나 능력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05

뵈뵈와 브리스길라(by 초)



*갈라디아서 3:26-29



"1020세대가 경험하는 교회 내 성차별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안고 이화여대 이주아 박사와 함께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20세대 청소년/청년 5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전문가 집담회의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미래세대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성차별의 경험을 들여다보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기독교여성주의운동의 기초자료로, 관련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Y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
E
M
I
N
I
S

· 활동가들의
이야기

M

황성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개인적 경험들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힘을 쏟아 주신 기독교성주의 연구커뮤니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꼭 다시 뵙길 소망합니다. 또한 서울YWCA 성평등 운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응원과 격려로 힘을 실어주시는 여성참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성주의 사업이 멈추지 않고 평등한 살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소망하며 내년 사업비를 기부하신 김재신 이사님의 그 헌신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다양한 의견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실어주신 정선덕 부위원장님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인내와 수고, 그리고 기도로 함께 했을 실무자 여러분, 이기쁨 선생님, 김예리 부장님, 최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였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선덕

제가 새내기 활동가였던 7-8년 전만해도 ‘성인 잡지’와 ‘햇갈릴까’ 걱정하며 매번 발음할 때마다 주의했던 ‘성인지’ 감수성이 점차 시민들의 일반상식이 되고 있는 만큼, 성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은 급격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페미니즘을 논하고 성평등을 언급하기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년전 서울YWCA가 진행한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 프로그램은 성서 속 ‘주연’이었던 여성들을 ‘주연’으로 발굴하면서 교회 안 여성의 위치를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 주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교회 언니들의 불금파티’는 그동안 쉬쉬하던 교회 안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교회 안 성평등문제를 고민해오던 서울YWCA에게 있어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올 한 해 진행된 ‘기독교성주의 연구커뮤니티’는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교계, 학계, 시민단체 각 영역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니 자연스럽게 ‘연대의 힘이 발휘되었고 올해 계획했던 각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저는 이 사업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마지막 작은 담장도 허물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연대의 힘은 향후에도 기독교성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YWCA의 활동가로서 이대 열에 참여할 수 있음이 영광스럽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김재신

몇 해 전 서울YWCA에서 열린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 존재하는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해 교회 언니들과 청년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까요? 그런데 그때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한 청년으로 인해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10년도 더 된 그 사건을 계기로 청년은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여전히 그때의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배신으로 몹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청년이 경험한 사건이 충격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경험한 사건은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었는데, 청년들이 느낄 아픔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무뎠던 나 자신에 놀란 것입니다.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는 대책없는 중년의 권사였던 것입니다.

이후 서울YWCA 이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YWCA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정신을 이 사회에 구현하는 위원회가 어디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여성참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참여팀에서 활동하며 참여하게 된 ‘성평등한 교회 만들기 사업’은 여러 면에서 제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교회나 교단 등 기독교단체의 지원이 아닌 교회 밖에서 먼저 문제 의식을 갖고 교회의 성차별 문제에 접근토록 도와주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독교성주의 연구커뮤니티로 프로그램 진행 및 자문을 위해 모인 각계 계층의 여성 신학자, 교수, 목회자, 활동가 등과 만났을 때는 물 만난 고기 마냥 즐거워하며 이제 서라도 이런 마당을 열어 교회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물고기가 터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사회의 다리로서 기독교성서인간체인 서울YWCA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 싶습니다. 이런 가슴 아파하는 기독교 청년들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길을 열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최봄

Why not Change the World?

많은 활동가들의 삶을 추동하는 모토가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활동해 오던 중, 2018년 3월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 현장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분노하고 울부짖는 청년 여성들은 교회 밖 세상이 아닌, 교회공동체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화해야 할 곳은 교회 밖 세상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넘어, 교회가 성평등한 교회공동체로 변화하는데 지혜와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교회도 바꾸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지요.

서울YWCA에서 3년 전, 선포한 미래 비전 중 하나는 서울YWCA가 한국 사회 여성단체들의 만연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활동가들과 여성단체들을 연결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주는 것이었지요. 놀랍게도 올해, 흠어져 흠로 고군분투하며 활동해오던 시민단체 활동가, 교회 목회자, 신학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기독교성주의 연구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흔쾌히 참여해 주셨지요. 연결과 연대 플랫폼으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여성재단 지원과 전문가분들 덕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라 믿고 싶어요.

교회의 민낯을 아프지만 안고, 연결과 연대의 플랫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함께 교회공동체의 변화로 이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시도한 것처럼요. 이것이 서울YWCA에서 기독교성주의운동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할 성평등운동입니다. 교회공동체가 차별없는 살림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교회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 권력 등을 재구조화 해야 하는 아프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교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크리스천들이 차별없이 진심으로 평등하게 존중받고, 리더로 세움을 받는 낯선 과정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교회공동체 가운데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이 변화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발걸음하기를 기도합니다.

Why not Change the Church?

김예리

기독교와 페미니즘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페미니즘은 반기독교적이고, 교회의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라 공포를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을 진행하며 쉽지 않지만, 페미니즘이 교회와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가부장제와의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한 국사회에서 성차별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교회 안의 차별을 마주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별을 알아채는 눈을 가져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겠지요.

서울YWCA는 2018년 '여성의 눈으로 성경읽기'를 통해 이제껏 알아온 성경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해석이라는 것과, 그 해석들이 5천년 가부장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에서 교회 안의 성차별 경험으로 울던 자매들과의 만남, 여성의 눈으로 성서읽기 모임에서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로 사는 삶을 말하며 그자리의 모두를 울게한 한 자매와의 만남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교회 안의 상처입은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기획한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도 의미있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성주의 연구커뮤니티에서 교회의 변화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성평등교육 현장에서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장에 목마른 이들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미 변화의 싸움을 시작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차별의 존재를 인식하며 충격에 빠지거나,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만났습니다.

교회 안의 차별을 말하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도, 내가 사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올해 진행한 성평등교육, 영상콘텐츠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테지만, 그 모든 과정은 조금 더 평등한 교회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올해 6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며 이를 반대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서울Y 여성참여위원회에서 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의 쟁점에 대해 공부해보자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만 들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많이 들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도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이 서울YWCA가 해야하고 서울YWCA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한 위원님의 말씀이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차별로 인해 소외된 이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편견없이 이해해 보는 것.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서울YWCA의 소명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와 만나고 싶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말씀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시대의 문화에 기반한 '해석'을 분리해 읽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을 충실히 살아내며 차별없는 살림의 공동체로의 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쁨

하나님 나라를, 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노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는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견어내어 모든 약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리와 양이 같이 뛰놀기 위해서는 이리는 이빨이 다 뽑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뽑혀야 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가부장제, 기득권, 권력, 차별, 혐오, 불평등, 성폭력' 등의 이빨이 뽑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추구하는 기독교 여성주의는 이 땅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독교 여성주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평화가 정말 모두에게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의 불평등과 차별과 혐오, 폭력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집담회, 성소수자 인터뷰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차별과 혐오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소외되는 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이 권력에서 배제되고, 성소수자, 약자들이 차별받고 배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살롬'은 교회 안에서 성평등교육을 하며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차별에 대해 직면하고 우리 교

회 공동체는 어떠한가? 고민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평등교육을 진행하면서 '페미니즘이 교회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물론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고, 때론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 청년들이 위로를 받았다거나 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독교 여성주의가 살롬의 공동체를 위해 일조하고 있구나, '페미니즘이 교회 담장을 넘어 함께 뛰놀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독교 여성주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 살롬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YWCA 기독교여성주의운동과 함께하는 분들

강호숙 박사 기독교문학연구원
 김혜령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김희선 교수 명지대학교 상담복지학과
 나연수 목사 서울은현교회(예정합동)
 장근지 연구원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민논페미
 백소영 교수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송진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오수경 대표 청어람 ARMC
 이민지 작가 『언니네 교회도 그래요?』 저자
 이상철 목사 한백교회,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이은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이주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장승익 목사 예수마음교회
 채송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통합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